

**2001년 對중남미 해외직접투자 동향**

**□ FDI 유입규모 감소세 지속**

- 지난해 對중남미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797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FDI 유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세계경제 침체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전세계 FDI 규모가 5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중남미는 10% 감소에 그쳤고 과거 5년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전세계 FDI 규모는 2000년 1조 2,710억 달러에서 2001년에는 7,600억 달러로 감소함.)

**< 표 >                      중남미 주요국의 FDI 유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멕시코	9,526	9,186	12,831	11,312	11,915	13,286	24,730
아르헨티나	5,610	6,949	9,161	7,292	23,984	11,665	3,181
브라질	4,859	11,200	19,650	31,913	28,576	32,779	22,636
칠레	2,957	4,634	5,219	4,638	9,221	3,675	4,602
콜롬비아	968	3,112	5,639	2,932	1,326	2,615	2,018
페루	2,056	3,226	1,781	1,905	2,390	680	1,100
베네수엘라	985	2,183	5,536	4,495	3,187	4,110	3,085
중남미전체	31,355	52,513	77,586	85,109	105,156	88,469	79,708

자료 : ECLAC.

- 국가별로는 멕시코가 브라질을 제치고 중남미 최대 FDI 유치국(247억 달러)으로 부상하였으며, 브라질(226억 달러), 칠레(46억 달러) 등의 순이었음.
-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은 FDI 유입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감소세를 보임. 특히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1999년 240억 달러, 2000년 117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1억 달러로 FDI 유입 규모가 급감함.

#### □ 향후 전망

- 금년에도 對중남미 FDI 유입 규모는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는 주요 투자국인 미국의 경기회복속도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남미 국가들의 FDI 유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민영화 프로젝트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FDI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임.
- 한편, 향후 對중남미 FDI는 민영화나 기존기업의 인수·합병보다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주요 투자분야는 전력, 통신, 수송 등 인프라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다국적 기업이 발표한 對중남미 투자계획도 전력(140억 달러), 통신(55억 달러), 수송(43억 달러) 등 인프라 분야와 석유산업(50억 달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은 13.6억 달러(4%)에 불과함.

책임연구원 김영석(☎3779-6653)

E-mail : claudio@koreaexim.go.kr